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Environment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Jae-Nam Kim*

Abstract

Recently, a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ers living in Korea increase, the proportion of various types of families and middle-admitted youths is increasing. These youths are less educated than their domestic counterparts, and their conversation time with their family members is relatively weak.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specialized education system for education and socialization. Immigration background among middle-admitted adolescents, children arrived in Korea regardless of their will, with socialization already in the country where they were born, it is a reality that various difficulties are experienced in the socialization of Korea society about language, education, emotion and employment. For this reason, some of the migrant background youths are pointed out as a big problem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which is 18% of the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classes, which are not educated and are not willing to find jobs or employme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problems of middle-admitt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the number of middle-admitted adolescents increased, and suggested the necessary ways for them to achieve rapid socialization and settlement in Korea society.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problem of education of middle-admitted children as a discriminative approach which is different from general support method for middle-admitted children presented in previous research, since then, we have presented an alternative to carry out realistic, systematic and successful educ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centered on the middle-admitted youths of Gwangju city.

▶Keyword: Multicultural Families, Middle-Admitted Youths, Middle-Admitted Adolescents, Migrant Background Youths,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Socialization

I . Introduction

우리 한국 사회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그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불리어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은 국제결혼 이

주 여성과 출신국가 현지 남성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 남성과 재혼한 어머니 따라서 한국으로 동반 하거나 차후 입국한 자녀들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 중 출신 나라에서 출생한 후 입국하게 된 자녀들이다. 이들은 출신 나라에서 출생한 후 출신 국가 언어와 문화를 이미 득한 후에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을

• First Author: Jae-Nam Kim, Corresponding Author: Jae-Nam Kim

*Jae-Nam Kim (jnkim@kwu.ac.k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Received : 2017. 10. 27. Revised : 2017. 11. 05. Accepted : 2017. 11. 16.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2017(KWU I17-031)

• In this paper, I have made some excerpts from the contents of "Gwangju City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Education and Improvement Plan(2016)" by the Gwangju City Council participated as the research director

갖게 된다. 이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로 불리어지지만 한국에 태어나서 자란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1].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첫째, 언어와 문화의 부적응 문제이다. 한국어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본국 문화와는 다른 한국문화 상황이다 보니 일상에서의 사소한 문제부터 큰 어려움이 있게 된다. 둘째, 정체성의 혼란이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본국에서 이미 사회화 과정을 경험한 이후에 한국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대한 문화, 정서 등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이것으로 인하여 좌절감이나 갈등이 크게 나타난다. 셋째,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이다. 대다수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중도입국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학업 중단을 겪었다. 입국 하기 전에 상당 기간 동안 교육 공백 상태에 있어 지속적인 학업이 어려웠고, 학업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2].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결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 중에서도 상급학교 진학을 못하여 결국 어린 나이에 공교육 제도권으로부터 이탈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많다. 이들이 교육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심리적인 위축감과 자신감 상실로 인하여 가출, 무단결석, 폭력범죄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3].

반면에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갖지 못한 이중 언어의 가능성, 이중 문화의 유능성 등 그들만이 갖출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장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력을 제대로 성장시킬 경우 한국사회 내부에서 글로벌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간 교류를 연계할 수 있는 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성장이 충분하다. 한국사회에 정착해야 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문화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한국사회에 통합되어 한국사회 인적자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3].

이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중도입국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광주광역시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이면서도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빠른 사회화를 이루고 정착하여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Middle-Admitted Children Class and Characteristics in Multicultural Families

1.1 Form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과 기술 발달로 인하여 세계는 빠른 속도로 세계화가 진행되었고, 국가와 문화 간에 이주와 교류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로 하나의 사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3D 업종 기피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의 사회현상 등과 맞물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그리고 이주배경자녀 등이 계속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자연스럽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4].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2조 제1호에서 의미하는 가족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제한외국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둘째는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되어진 가족을 말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용어 표현은 가족의 결합은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갖는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가족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5].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 3월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유형과 관련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주여성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 출생자녀’, 여성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남자와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같이 온 자녀, 또는 외국인 부모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청소년의 시기에 들어 온 자녀에 대해서는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을 ‘외국인 가정자녀’로 분류하고 정의하였다.

다문화학생 수는 2016년 99,186명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6,650명(20.2%)이 증가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최근 7년간의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다문화학생의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음

Table 1. Increase Trend of Multicultural Students

Unit : person, %(A / B * 100)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Multi. Students(A)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All Students(B)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6,097,297	5,890,949
Multi. Students Ratio	0.44%	0.55%	0.70%	0.86%	1.07%	1.35%	1.68%

Table 2. Number of Students in Middle-Admitted

Unit : person / (Ele:elementary school, Mid:middle school, High:high school)

Division	2014				2015				2016			
	Ele	Mid	High	Sum	Ele	Mid	High	Sum	Ele	Mid	High	Sum
Domestic	41,575	10,325	5,598	57,498	50,279	11,075	6,745	68,099	59,988	11,489	7,657	79,134
Midway	3,268	1,389	945	5,602	3,988	1,393	880	6,261	4,583	1,627	1,208	7,418
Foreign	3,454	811	441	4,706	6,016	1,397	763	8,176	9,453	1,989	1,192	12,634
Sum	48,297	12,525	6,984	67,806	60,283	13,865	8,388	82,536	74,024	15,105	10,057	99,186
Ratio	71.2%	18.5%	10.3%	100%	73.0%	16.8%	10.2%	100%	74.6%	15.2%	10.1%	100.0%

을 알 수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학생 수가 전체의 1%를 상회하고 있고, 2015년도에 비교하여 2016년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는데 다문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6].

1.2 Middle-Admitted Children Class in Multicultural Families

재혼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자녀들을 한국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도 동시에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한국사회적응이 교육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의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등 다각도의 다문화교육정책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였다[7]. 중도입국자녀란 교육부(2012)의 개념규정에 따라서 중도입국자녀란 “국제결혼을 통해서 구성된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외국인 부모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청소년의 시기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자녀”로 정의하고자 한다. 법무부 내부 자료와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중도입국자녀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초·중등학교(각종학교 포함) 다문화학생 수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20.2% 증가한 99,186명(전체학생 대비 1.7%)으로 10만명에 가까워졌다. 2016년도 유형별 다문화학생 수를 보면 국내출생자가 79,134명(79.8%)으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가정 12,634명(12.7%), 중도입국자 7,418명(7.5%)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도입국 학생 수가 해년 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에 있는 중도입국 학생 수는 7,418명으로 파악되었으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4,583명, 중학생은 1,627명, 고등학생은 1,208명이다[6].

1.3 Characteristics of Middle-Admitted Children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에서 출생하고 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비율이 높은 이주 노동자 가정이나 친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이주한 가정보다 가정생활의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구성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태어나고 성장한 곳을 벗어나 낯선 나라에서 정서적 안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분노, 불안, 불안 등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적 경험을 보유하게 된다[8].

첫째,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가족 해체는 물론이고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한 경험을 갖고 있다.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하여 어머니와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떨어져서 생활한 경험으로 인하여 모자 간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한 경우들이 생기기도 한다. 둘째, 가족이 새로이 형성되었으나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새 아버지는 포용적이지 않는 경향이 많고 한국어로 서로 간에 의사전달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와만 출신국의 언어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데, 어머니도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새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새로운 동생이 태어날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자신만이 외톨이가 된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셋째,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체계가 충분하지가 않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새로운 가족구성 형성의 특성 때문에 빈번한 가정불화나 경제적인 빈곤을 경험하기가 용이하고, 특히 10대 이후인 청소년기 후기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형성이라는 성장적 과제는 물론이고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적응해야 하는 추가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중도입국자녀들이 속한 환경 때문에 역량을 갖춘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9].

2. Related Laws of Middle-Admitted Children

다양한 이주 배경과 법적 지위가 서로 다른 다문화학생들의 교육 지원 근거가 되는 관련법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991년도에 우리나라가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 제6조 제1항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이후 지속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법률의 정비와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들을 해왔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UN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시기의 경우에도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었고, 입양을 할 경우 해당 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성립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서 개선되었다.

그리고 과거에 불법체류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 학교에 입학

Table 3. Support Related Laws for Middle-Admitted Children

Division	Law	Support	Main Content
Special Laws	Basic Law for the Treat. of For. in Kor.	Treatment	-Human rights advocacy, Treatment of married immigrant children
	Multi. Fam. Sup. Law	Welfare	-Stable life support, Human rights protection
	Overseas Koreans Law	Stay	-Status of residence
Related Laws	Immigration Con. Law	Stay	-Immigration, Protection, Stay
	Nationality Law	Stay	-Nationality acquisition and loss
	Secondary Education Law	Education	-Guarantee of study rights, Public education
	Infant childcare Law	Nursery	-Vulnerable child care
	Youth Welfare Supp. Law	Welfare	-Korean,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Emergency Wel. Sup. Law	Welfare	-Support for difficult living

Table 6. Abortion Rate of Multicultural Students of Gwangju City(2014.3~2015.3)

Unit : person(NW : Nationwide, GJ : Gwangju)

Division	Elementary		Middle		High		Sum	
	NW	GJ	NW	GJ	NW	GJ	NW	GJ
Mul. Students	48,297	1,079	12,525	292	6,984	149	67,806	1,520
Suspended Stud.	435	4	146	3	107	3	688	10
Abortion Rate	0.90%	0.37%	1.17%	1.03%	1.53%	2.01%	1.01%	0.66%

하거나 전학을 할 수 없어서 해당 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 2008년 2월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국내 학교로의 입학은 물론이고 전학도 가능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10].

다문화가족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들로는 헌법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보장관련법, 건강가정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영유아보육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교육기본법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들을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되어진 특별법과 일반인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관련 법률들로 <Table 3>과 같이 분류, 정리하였다[11].

Table 4. Status of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2015.4.1. now)

Unit : person

Year	2011	2012	2013	2014	2015
Number of Students	932	1,086	1,257	1,526	1,899

1.2 Status of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by School Level

2015년 현재 초·중·고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899명으로 파악되었으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373명, 중학생은 333명, 고등학생은 192명이다[12].

Table 5. Status of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School Grade)

Unit : person

Division	Ele.	Mid.	Hig.	Spe.	Sum
Number	1,373	333	192	1	1,899

1.3 Abortion Rate of Multicultural Students

<Table 6>을 보면 전국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을 현황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업 중단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전체 학업중단율의 평균보다는 낮지만 학업중단율의 수준은 전국 다문화학생의 학업 중단율 증가 수준보다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

III.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Improvment Plan of Middle-Admitted Children of Gwangju City

1. Characteristics of Middle-Admitted Children of Gwangju City

1.1 Status of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2016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 현황을 <Table 4>와 같다. 광주광역시 초·중·고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학생들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5년 이내의 광주광역시의 다문화학생은 2011년 932명에서 2015년 1,899명으로 약 2배 증가하는 등 해마다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12].

2. Educational Improvment Plan of Middle-Admitted Children of Gwangju City

중도입국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다문화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입양 또는 귀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지원이 제한된다. 이러한 이유로 중도입국자녀들은 신분이 안정되지 못하고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다. 게다가 중도입국자녀들 대부분은 정규학교 입학에 위한 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교육기관에서도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도입국자녀들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국 중도입국자녀들이 공교육장소인 학교에 입학하기까지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대부분 이 기간 동안에는 집에 머무르거나 대안학교에 입학하거나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민간기관이나 학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집에 방치되어 있는 중도입국자녀들은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은 사회나 국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일탈행동을 하게 되어 결국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2012년부터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취학 전에 예비과정 운영과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부터 시범 운영으로 레인보우스쿨(Rainbow School)을 중도입국자녀의 초기적응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레인보우스쿨을 전국 15개의 광역시로 확대하여 총 23개 기관에 직영·위탁의 운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 한국어교육과 사회적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2016.11.15) 중도입국학생들과 외국인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찾아가는 예비학교를 12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예비학교는 예비학교와는 다르게 학교에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 학생들이 입학할 경우 해당 학교에 강사를 파견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지원 사업이다. 이 지원 사업은 주2회, 1회당 2시간씩 2017년 2월 24일까지 실시되었다. 예비학교는 중도입국학생 등을 위해 각종 학교에 특별 학급을 설치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고 통합교육이 가능한 교과 교육은 일반학급에서 실시하는 학교를 말하는데 광주에서는 새날학교, 하남중학교, 하남중앙초등학교, 대반초등학교에서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원과 후원으로 운영되는 새날학교는 한국어 수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초·중고등학교의 통합형 대안학교이며 공립형 위탁교육기관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별학급이나 예비학교, 대안학교는 중도입국자녀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공교육 제도권 내로 유인하는 제도이다. 새날학교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자녀, 유학생,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를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이고 중도입국자녀 등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중도입국자녀 등이 원적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부처와 민간에서 지원하는 중도입국자녀 지원 사업들은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한 초기 적응 지원과 교육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도입국자녀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 자신의 연령에 맞는 눈높이 수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제도

권 교육기관인 정규학교에 입학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취업하는 등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요청되게 한다.

따라서 공교육 제도권 내로 유인하는 제도나 원활한 원적교의 생활 적응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시스템을 탈피하여 교육부와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원에 의한 명실상부한 제도권 교육기관으로서 ‘융합형 캠퍼스의 사립형 다문화 종합학교’ 설립 및 운영모형에 대해서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전제(前提)로 하여 제안한다.

[Condition 1] Establishment and Business Method

학교법인(사학)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사업추진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의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추진한다.

[Condition 2] Method of Securing Teaching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융합형 캠퍼스의 사립형 다문화 종합학교’는 광주시교육청 관할의 폐교나 교육용 부지를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투자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민간투자자는 일정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으로 한다.

현행 기준령에 따라 교지 기준 면적은 12학급까지의 경우에 4,000㎡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12학급 초과~24학급까지는 학급당 300㎡, 24학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급당 200㎡를 가산한 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Condition 3] School Ground Establishment Standard

‘융합형 캠퍼스의 사립형 다문화 종합학교’의 규모는 광주광역시에 생활하고 있는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중도입국자녀,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의 학령기에 있는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15년 현재 광주시의 다문화가족 자녀수가 5,067명(다문화가족 학생 수 1,899명)으로 중도입국자녀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들 중 학령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매머드(mammoth)급으로 한다. 교사 연면적 기준 현황을 보면 평균 학생 1인당 초등학교의 경우 18학급 이하 10.11㎡이며, 중학교의 경우 18학급 이하 11.41㎡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18학급 이하 12.25㎡이다.

[Condition 4] Curriculum Management Plan

‘융합형 캠퍼스의 사립형 다문화 종합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초·중·고등학교 정규과정과 직업전문학교 형태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모든 교육과정은 학습자 한국어 능력 및 한국문화의 이해를 기본으로 한다.

즉 교육과정은 사회통합과 글로벌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문화학생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다문화 학생들이 요구하는 적합한 진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둘째, 중도입국 자녀와 국내에서 자라난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교육방법을 획일화하지 않고 이주배경 등에 따라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한국어 능력에 따른 눈높이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눈높이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미국의 학제를 적용하여 초등학교는 1~5학년 내지는 1~6학년까지로 구성하고, 중학교는 일반적으로 6~8학년 내지는 7~8학년으로 구성하며 고등학교는 9~12학년의 4개 학년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을 학생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하되 유급과 월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전문직업훈련 과정을 거쳐 취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외국인 성인들의 한국어 교육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모든 과정은 한국어 능력과 수학능력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 수강신청제도를 도입하고 4학기제를 운영하며 1·3학기는 의무학기, 2·4학기는 선택학기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안하는 교육과정 운영방식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예비학교, 특별학급, 대안학교의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에도 효율적 방안이라고 본다.

[Condition 5] Dormitory Management Plan

대규모 시설의 기숙사는 단체 생활을 할 경우 규칙적이고 획일적인 생활을 해야 하므로 이의 대안으로 ‘융합형 캠퍼스의 사립형 다문화 종합학교’의 기숙사 운영방식은 공동생활가정(group home)과 소숙사 제도(cottage system)를 제시한다.

소숙사 제도는 가정적인 분위기를 증대시키고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전용면적 60m² 이상의 주택형 숙사에서 5~7명 정도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단독건물에 거주시키는 제도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각 분야에서 재능과 강점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 환경을 마련해 주고 공동생활가정으로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환경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한 나눔지기(멘토)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면 사회화의 상호작용과 동화작용에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IV. Conclusion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으로 [14]의 연구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초기적응 프로그램 체계화 및 이수 인정, 정체성 교육지원, 공교육에의 접근가능성의 확대, 이주청소년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 지원을, [1]의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기관의 확대, 정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 지원체계의 다양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청소년의 현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해서 정부기관이 연계된 협조 체제필요, 이주 배경 자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15]의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과정의 구분 필요, 청소년들의 진학과 관련하여 초·중등 교육기관의 편입학 기준 완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직업훈련교육을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교육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나 대부분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공교육 제도권 내로 유인하는 제도나 원활한 원적교의 생활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관련법규와 교육지원 정책들은 문화 복수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화의 지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적인 접근방법으로서 그 동안의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을 통하여, 광주광역시 교육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이면서도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교육부와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원에 의한 명실상부한 제도권 교육기관으로서 ‘융합형 캠퍼스의 사립형 다문화 종합학교’ 설립 및 운영모형을 제안하였다. ‘

이를 통하여 전문 교육기관 시설 확보에 따른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부모와 가족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외국인 성인들의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명실상부한 제도권 교육기관인 ‘융합형 캠퍼스의 사립형 다문화 종합학교’에서 현실화함으로써 향후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여 안정적이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FERENCES

- [1] Oh, Seong Bae · Kim, Gyeong Mi · Kim, Jae Woo · Seo, Deok Hee · Oh, Jeong Eun, “Analysis of Supporting State of Middle Entry Youth by Region”, 『IOM Research

- Report of Immigr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 2013-03」, IOM Immigr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2013.
- [2] Cho, Jin Gyeong, “Negotiation of the identity of Chinese immigrant adolescents in their experiences of after-school English classes” , Inha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6.
- [3] Han, Eun Jin, “Adaptation Process and Type Analysis through the Experiences of Adaptation to Korea society and culture of Middle Entry Adolescents” , Wonkwang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2.
- [4] Kim, Hong Gi,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Domestic Middle Entry Adolescents : Focusing on Chinese Children’s Schooling”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ster Thesis, 2016.
- [5] Kim, Sun Mo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and Job Attitude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Workers : Focusing on the effect of empowerment and self-efficacy” , Chosun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2.
- [6] Basic Statistics of Educat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6.
- [7] Kim, Jeong Min, “Explore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 Learning Experience of Middle Entry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 Dankok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3.
- [8] Ryu, Bang Ran · Oh, Seong Bae, “Actual Condi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Adaptation of Middle Entry Adolescents” ,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 5(1), pp.29-50, 2012.
- [9] Chang, Myeong Sun · Song , Yeon Suk, 「Present Status and Support Plan for Middle Entry Adolescents in Seoul City」 , Seoul Women’s Family Foundation, 2011.
- [10] Yang, Seung Ju et al.,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Public Education Entry Plan」 , Hanyang Univ. ERICA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Foundation, 2016.
- [11] Jeon, Gyeong Suk · Cheong, Yo Han, “Monitoring and Efficiency of Early Adaptation Support Project of Middle Entry Children” , 「Policy task, 2014-26」 , Gyeonggi Province Family Women Research Institute, 2014.
- [12] Multicultural Education Promotion Plan of Gwangju City Office of Education, Gwangju City Physical Education and Welfare Department of Health, 2016.
- [13] 「2015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 Ministry of Education, 2016.
- [14] Yang, Gyeoi Min · Cho, Hyeoi Yeong, 「Study on the Actual Status of Middle Entry Youth」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
- [15] Shin, Hyeon Ok et al., 「Survey on the Status of Middle Entry Adolescents」 , Rainbow Support Center, 2014.

Authors



Jae Nam Kim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Computer Science and Statistics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84, 1989 and 2006, respectively. Dr. Kim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in 1992.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Welfare Information System, Welfare Statistics.